



이용규가 살아야 KIA 야구도 산다

‘첫 타석 출루·도루=팀 승리’... 저조한 타율 회복하면 공격야구 숨통 트일 듯

KIA의 승패가 궁극이라면 ‘날쌘돌이’ 이용규의 발을 주목하라.
 KIA 타이거즈의 톱타자 이용규는 지난 시즌 0.333의 타율과 함께 생애 두 번째 골든글러브를 품에 안았다.
 하지만 올 시즌 이용규의 방망이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11일 현재 이용규의 타율은 0.249에 불과하다. 지난해 111경기에서 나와서 33개의 삼진만 기록했던 이용규지만 올 시즌 47경기에서 벌써 21개의 삼진을 당했다.
 답답한 마음에 방망이를 놓고 웨이트와

러닝 위주의 훈련을 하며 타격 밸런스 잡기에도 나섰지만 이용규의 방망이는 좀처럼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이용규가 침묵하면 팀타선도 함께 침묵을 하는 악순환 속에 KIA의 순위싸움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타석에서의 감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이용규는 방망이 대신 발로 톱타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용규는 올 시즌 19차례 베이스를 훔치며 롯데 전준우를 따돌리고 도루부문 1위를 달리고 있다. 득점 부문에서도 타율 고평행

진종인 백선 강정호(타율0.343·42득점)와 LG 박용택(타율0.324·39득점)에 이어 36번 홈을 밟으면서 3위에 랭크됐다.
 2011시즌 30개의 도루와 84득점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페이스보다 한참 앞서는 수치다.
 공격적인 베이스러닝으로 부족한 타격을 채우고 있는 셈이다. ‘첫 타석 출루와 도루 = 팀의 승리’라는 공식도 만들었다.
 이용규가 올 시즌 1회 선두타자로 나와 출루에 이어 득점까지 기록한 경우는 총 9차

레. 이 중 8경기에서 팀은 승리를 신고했다. 특히 1회 출루에 이어 도루까지 성공시킨 5경기의 승률은 100%다.
 이용규의 ‘독한 야구’가 경기 시작과 함께 상대 배터리를 흔들면서 공격에 불꽃을 트는 것이다.
 지난 7일 삼성과의 홈경기에는 이용규의 진가를 제대로 보여준 경기였다.
 발뒤꿈치 통증으로 벤치에서 팀이 2연패를 당하는 것을 지켜보아 했던 이용규는 이날 삼성 선발 탈보트를 상대로 10구까지 가는 광란의 신경기 끝에 1회말 출루

에 성공한 뒤 최희섭의 적시타 때 홈을 밟았다.
 이용규는 3회 두 번째 타석에서도 9개의 공을 던지게 하며 불넷을 끌라냈고, 5회에는 중전안타에 이어 도루를 추가했다. 그리고 이호신의 결승타로 제역전에서 성공한 8회 희생플라이로 타점을 올리며 팀의 5-4 승리를 이끌었다.
 공격의 최전방에 선 이용규의 방망이까지 상승세를 탄다면 KIA의 공격 야구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야구 10구단 다음주 결정난다

전북·경기 수원 유치 희망

프로야구 제10구단 창단 여부가 다음 주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양해영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총장은 12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제5차 이사회를 마친 뒤 “빠르면 다음 주중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10구단 창단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양 총장은 “최종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야구규약에 따라 표결을 강행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구단이 10구단 창단에 반대 의사를 밝힌 가운데 KBO가 강수를 띄우는 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KBO는 NC 다이노스가 합류하는 내년 시즌은 한시적인 9구단 체제로 운영하더라도 2014년부터는 10구단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이상적인 프로야구 발전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2014년 10구단 체제로 가기 위해선 늦어도 다음 달에는 신생팀이 확정되어야 한다.
 7월 중에 신생팀이 출범해야 8월 20일로 예정된 2013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선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10구단은 경기도 수원과 전북 지역 구단 유치를 희망하는 가운데 복수의 기업체도 프로야구 참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팀 창단에 큰 걸림돌이 없다.
 남은 문제는 KBO 총재와 9개 구단 사장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10구단 창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야구규약에 따르면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출석과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명시됐다.
 /연합뉴스

광주체고 출신 황우진

근대5종 런던올림픽 출전

광주체고 출신의 황우진이 근대5종 대표로 런던올림픽 무대를 밟는다.
 대한근대5종연맹은 12일 경기력향상위원회를 열어 런던 올림픽에 출전할 국가대표 남자 선수로 황우진(22), 정진화(23·이상 한체대)를 뽑았다고 밝혔다. 또 여자 선수로 양수진(24·LH)을 선정했다.
 황우진과 정진화는 올해 열린 제52회 근대5종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계주에서 금메달을 딴 유망주다.
 /연합뉴스



광주시장기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식이 12일 선수단·임원·심판진 등 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광주 빛고를 체육관에서 열렸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장애인체육대회 개막

좌식배구 등 13 종목 350명 선수들 5일간 열전

광주 장애인 체육인들의 열전이 펼쳐진다. 제5회 광주시장기 장애인체육대회가 12일 빛고를체육관에서 개막식을 갖고 5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좌식배구, 보치아, 론볼 등 13개 종목에 350명의 선수가 출전하는 이번 대회는 오는 10월 경기도에서 열리는 제32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광주시 대표선수 선발전을 겸하며 영주체육관, 남부대사격장, 첨단 론볼장 등 12개 경기장에서 진행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편 대회 개막식에서 오는 8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는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하는 광주 소속 국가대표에 대한 특별 격려가 이뤄졌다.
 대한민국은 런던 장애인 올림픽에 13개 종목 144명의 선수단을 파견하며 탁구, 양궁 종목에서 선발된 광주소속 국가대표 8명(선수 7, 코치 1)은 경기도 이전에 있는 장애인 선수촌에서 합숙훈련을 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Hole in one and Dynasty Zon EVENT

| 기간 | 2012년 6월부터 ~ 종료시 까지
 | 내용 | 지정홀 출신원 및 다이내스티존 성공시 혜택
 | 대상 | 주중 내정팀에 한함

Hole in one	
임페리얼 7번홀	● 혜택
마제스티 12번홀	팀 전원 그린피 면제
팰리스 20번홀	(개별소비세, 카트비 별도)
Dynasty Zon	
팰리스 27번홀	● 혜택
	팀 전원 300cc 생맥주 제공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15,000원 ● 이리랑하우스 한정식: 25,000원~

호남제일 음식문화를 사랑하는 아리랑하우스 여/름/메/뉴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준비하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홀플러스 건너편)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 1등 맛집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sojang.com